

---

2025년도

# 명예해양수산관 3/4분기 활동실적

---

2025. 10.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I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현황 .....	1
II . 2025년 3/4분기 활동실적 요약 .....	2
III . 2025년 3/4분기 명예해양수산물별 세부 보고내용 ..	11
1. 사모아 .....	11
2. 피지 .....	13
3. 파푸아뉴기니 .....	20
4. 아르헨티나 .....	25
5. 인도네시아 .....	31
6. 가나 .....	36
7. 세네갈 .....	45
8. 뉴질랜드 .....	51
9. 모리셔스 .....	54
[참고]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및 연락처 .....	61

### □ 개 요

- (추진 배경)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보 수집,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물 위촉운영
  -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로 위촉, 연안국 자료·정보수집 등의 임무 부여
- (주요 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물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 운영 현황

- 원양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등 교민 위주로 '25년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9명 활동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실적보고 (명예해양수산물 운영세칙 제4조)
  - 각 명예해양수산물별 활동내용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매익월 10일까지 해외수산협력센터 보고, 센터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시보고) 해난사고 등 긴급 상황 및 해양수산부,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한 수시보고

1. 사모아

◆ 활동실적 요약

○ (7월, 8월,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보고

2. 피지

◆ 주요 외교 활동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출장업무(ODA, 해양교육사업관련) 지원 ('25.7.6.~10.)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외교동향	- 김진형 주 피지 대사, 라부카 총리 예방 및 이임인사 - 중국대사관, 라부카 총리 발언 관련 입장 표명
경제동향	- 피지 경제성장률 3.2%로 소폭 하향 - 생활비 경감을 위한 세제 조정 발표
사회·노동동향	- 피지 노동시장 농업 중심 구조 지속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어업부문 재도약 위해 달러 투자 계획 - 남태평양 참치 새 협정 체결 - EU, 피지산 가공수산물에 글로벌 소싱 면제 승인

외교동향	- 중국·피지 방위협력, 군사기지 아닌 역량강화 중심 추진
------	----------------------------------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피지·통가·바누아투, 해양부문 탈탄소화 5개년 이니셔티브 출범 - 피지 수바에 IMO 지역사무소 개설
외교동향	- 솔로몬 PIF 참가국 제한 결정에 피지 총리 우려 표명
경제·관광동향	- 피지, 관광수입 사상 최고치 경신 - 피지 무역, 주요 파트너국 수요 변화로 혼조세

### 3. 파푸아뉴기니

#### ◆ 주요 외교 활동

- PNG 이민국 차관에게 한국 선망선 입출항 편의 도모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25.9.6)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라이너 라이선싱 체계개편 및 중국기업 진출 허용</li> <li>- 중국기업 진출로 지속가능 어업기반 훼손 우려</li> <li>- 한국의 대응 및 기회요인 : 수산외교를 통한 전략적 진출 필요</li> </ul>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시장개발 위해 중국, 홍콩, 광둥성 연계사업 추진</li> <li>- 일본 9,100만 달러 무상원조, 부두보수, 경비정 2척 지원</li> <li>- JICA, Coastal Development 사업 진행 중</li> <li>- 중국, 일본 진출 확대 속 PNG 정책 압력 심화 및 한국과의 협력 공백</li> <li>-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li> </ul>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삼사업 금어기 해제 및 조업 재개</li> <li>- 제2차 경제특구 정상회의 개최</li> <li>- 경제특구 내 수산투자 유치 경쟁 심화</li> </ul>

## 4. 아르헨티나

### ◆ 주요 외교 활동

- 표창장 공여 및 아그네스 원양선사 임원과 오찬('25.8.4)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르코수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속화</li> <li>- 수산물 무역통제 규정 폐지 : 산업 자율성 강화</li> <li>- 북파타고니아 오징어 어획량 17년만의 최고치 기록</li> <li>- 남극 크릴새우 산업, 노르웨이·중국 중심으로 급속 확장</li> </ul>
경제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미 경제블록 내 무역 자유화 가속, 관세 악화 영향 확산</li> </ul>
환경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극권 생태계 파괴 및 탄소배출 논란 심화</li> </ul>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홍어 및 가오리 어획량 조정</li> <li>- 포클랜드 제도, 3년 연속 오징어 시즌 중단</li> <li>- 페루, 대왕오징어 남획 방지 위한 기술적 금지조치 시행</li> </ul>
경제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인플레이션 상회 : 실질소득 개선세</li> </ul>
외교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에라 델 푸에고 주정보, 불법조업 관련 스페인, 한국, 중국에 경고 서한 발송</li> </ul>
환경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대서양·남극 생태계 보존 이슈 지속</li> </ul>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미신고·무규제(IUU)어업 반대 국제회의 개최</li> <li>- 페루, 대왕오징어 어업 8월 25일 재개</li> </ul>
경제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델플라타 수산업 위기, 대규모 해고 발생</li> </ul>

## 5. 인도네시아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섬 판매 금지관련 인니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발표
환경동향	- 세계최초 ‘해양보호구역 성과채권’ 도입
산업·투자동향	- 해양공간사용 적합성 승인(KKPRL) 절차 신속화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바다거북·고래류 보호 위한 국가행동계획 추진
환경동향	- 인니·SEADEC,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공동이니셔티브 강화
산업·기술동향	- 바다거북·고래류 보호 위한 2025-2029 국가행동계획 추진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한국·인니 해양분야 장학사업 지속 추진 - 바다거북 알 5,400개 밀수 사건 적발
환경동향	-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프로그램 북자카르타 공식 출범

## 6. 가나

### ◆ 주요 외교 활동

- KMI 주관, CAPFISH summer academy 개막식 참석 ('25.8.18)
- Tema 항구 혼증 단지 건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교류 ('25.8.29)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가나 어업위원회, 금어기 카누어업 면제 효과 분석 착수
교육동향	- BSM, 가나 지역해양대학교에 해양훈련센터 개소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가나 의회 '2025년 어업 및 양식법' 통과 - 가나, UN 오션센터 이니셔티브 선도국 7개 중 하나로 선정
환경동향	- Mahama 대통령, Blekusu 해안 보호 프로젝트 2단계 착수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카누 어업인 전용 어업해역 확대 추진
국제협력동향	- KMI·WMU 공동주최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가나 개최 - KMI ODA사업 : Tema 여성어업인 대상 현대식 생선 훈연장 건설 착수

## 7. 세네갈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세네갈·기니비사우, 전통어업 안전 확보 위한 신규 협정 체결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Plan Senegal Emergent(PSE)’ 일환으로 해양수산 부문 고도화 추진
투자동향	- 참치 가공산업 육성 : 한국 동원그룹과 협력 논의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말리 화주위원회(CMC), 다카르항 컨테이너 해제 위한 사절단 파견
교통·인프라 동향	- 산디아라 내륙항 건설 및 다카르·바마코 철도 재활성화 추진

## 8. 뉴질랜드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어업국가 중 하나로 평가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수산업 개정안 발의 : 규제 완화와 산업 자율성 확대 중심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외래 해조류 ‘카울러파’ 확산, 생태계·경제에 심각한 위협

## 9. 모리셔스

###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EU IUU어업 대응 협력 대화 개최 (2025.7.7.~11) - 제 13차 SWIOFC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 개최
국제협력동향	- 지속가능한 해양거버넌스 구축 위한 국제협력 강화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모리셔스 항만물류공사 포트루이스 항만 현대화 추진 - 모리셔스·세이셸, 공동 해역 관리 강화 - 블루 이코노미 전담기구 설립 추진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세계 수로의 날’ 기념, 해저 지형도 세미나 개최
경제·무역동향	- 모리셔스 자유무역지대, 글로벌 비즈니스 및 지역성장의 관문으로 부상

## 1. 사모아

## ◆ 7월 보고서

##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7. 7.	Clipper Oil (American Samoa)	\$2.75 gallon

##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0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00 M/T	

## 다. 해양·수산업 동향

## □ 다랑어 어획 동향

- 금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 8월 보고서

##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8. 7.	Clipper Oil (American Samoa)	\$2.89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7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7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7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7톤의 어획율을 보임.

◆ 9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9. 6.	Clipper Oil (American Samoa)	\$2.97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7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7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7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3~0.6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 2. 피지

### ◆ 7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토니나 3호	2025-06-19/ 2025-06-25	휴식 및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7. 10.	TOTAL	\$1,354/MT	MGO	내주변동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200/ ton	로인가공용(PAFCO)

#### 라. 해양 수산업 동향

- 20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출장업무(ODA, 해양교육사업관련) 지원
  - 2025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진수 교수 등 총 10명은 ODA 및 해양교육사업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피지해양 안전청(MSAF)과 피지국립대학교 태평양해양연구센터(FNU-PCMS)를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기관 간 교류를 진행하였음
- 김진형 주피지 대사 이임 예방 - 라부카 총리, 한-피지 협력 기여에 감사 표명
  - 7월 중 이임하는 김진형 주피지 대한민국대사는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를 예방했으며, 총리는 양국 간 양자관계 증진에 기여한 김 대사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음. 총리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총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피지의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해왔으며, KOICA의 “푸르고 건강하며 안전한 섬“ 비전에 부합하는 보건, 환경 보호,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이 특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음. 김 대사 재임 중 완료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타마부아 국립건강재활센터 설립, 타베우니 나이셀레셀레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오발라우에서의 피지농업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중국대사관, 태평양 내 역할 관련 라부카 총리 발언에 입장 표명
  - 주피지 중국대사관은 피지 라부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태평양 활동은 지정학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 협력으로 지역 자립과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군사기지 건설 등 영향력 확대 의혹을 부인하고, 태평양 국가들이 외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외교관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함.

#### 마. 기타사항

- 피지 노동시장 구조 - 농업 중심의 고용현황 지속
  - 피지 노동시장은 여전히 농업 중심이며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장 및 관련 판매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2023~2024년 조사 결과, 숙련 농업·어업 종사자가 18.4%, 서비스·판매 직종이 18%를 차지함. 농촌은 농업, 도시는 서비스·판매 분야가 주도적이며 사무·기술·전문직 비중은 낮아 노동력의 사무직 전환이 더딤. 공식 부문 고용은 194,733명, 비공식 부문은 97,654명으로 고용구조의 이중성이 지속됨.
- 피지 경제 성장률 3.2%로 하향 조정 - 관광 정체 전망 속 소비·투자가 견인
  - 피지 중앙은행 산하 거시경제위원회는 2025년 피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2%로 소폭 하향 조정함. 이는 보다 엄격한 경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올해 초 5개월간의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관광 부문에서의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임. 위원회는 2024년에 기록적인 방문객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추세와 업계 피드백에 따라 2025년에는 방문객 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가 내수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예산 또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민간 투자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피지 정부, 생활비 경감 위해 VAT 및 관세 인하 발표

- 피지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22개 필수품목에 대해선 0%를 유지해 국민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동시에 일부 국내 제조업체 보호조치를 재검토하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철폐하기로 했음. 닭고기 내장 관세는 42%→15%, 냉동 연어 등 일부 생선은 0%로 낮추고, 감자·마늘·양파·차·식용유 등 생필품과 양고기 제품은 면세를 유지·확대했으며, 유제품은 5%를 유지하되 특정 기업 특혜를 폐지해 수입 경쟁을 공평하게 함. 이는 수입 식품 가격 안정과 물가 억제를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임.

◆ 8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8.08.	TOTAL	\$1,327/MT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 상	\$2,200/ ton	로인가공용(PAFCO)

## 다. 해양 수산업 동향

- 어업부문 재도약 위해 26년까지 9,630만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피지 어업부문은 코로나19 이후 감독과 인프라의 심각한 격차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산업 규모는 2억 7,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수익의 약 8%를 차지했음. 정부는 2026년까지 연구, 시행, 인프라 강화에 9,6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연구·연안 어업·양식어업·규제개혁·보급 및 자문서비스·교육·어업활동 모니터링과 집행 등 전 분야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배정할 계획임.
  - 어업부 장관은 정책 실행을 위해 강력한 이행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역량 강화, 보존어업, 시장 진출 경로 확대, 모니터링·감시·집행, 어류집약장치(FAD)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함.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수입 증대와 해안 지역사회 생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남태평양 참치 새 협정 체결, 지속가능한 관리, 수출 확대 추진
  - 피지어업 부문은 남태평양 참치에 대한 새로운 지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고 귀중한 해양자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수산부장관 Alitia Bainivalu은 20년간의 협상 끝에 태평양 섬나라들이 참치 어획량에 대한 비례적 할당 제도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경쟁적 접근방식을 대체하여 참치어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함.
  - 장관은 이것은 획기적인 성과이며, 지역적연대, 협력 및 상호존중의 강력한 증거이며, 향후 여러세대에 걸쳐 우리 참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할 것으로 이협정이 피지가 일본과 미국시장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선 및 냉장참치를 수출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해초묘목장 확대로 지역사회 소득·해양자원 보호 강화
  - 피지 수산부와 현지 그룹이 협력해 진행한 해초 모종 사업에서 Cakaulevu에 위치한 Dama Cluster 묘목장에 19개의 해초 모종이

성공적으로 배치됨. 이번 이니셔티브는 지역 주민의 생계 향상과 해양 자원 관리 촉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으며, 매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초의 최적 성장과 건강을 보장할 예정임

- 프로젝트는 향후 6주 동안 묘목장을 확장해 더 많은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용량을 늘릴 계획이며, 해당 묘목장은 다마와 인근 마을의 핵심 해초 공급원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양식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게 됨. 이는 해안 지역사회에 대체 소득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자원 보존을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도 맞물림.

□ EU, 피지 가공수산물에 글로벌 소싱 면제 승인, 관세 없이 EU수출 가능

- 피지 무역중소기업부는 EU가 가공 수산물에 대해 글로벌소싱 면제를 승인한 것을 환영함. 이 조치로 2025년 7월 31일부터 비원산지 원료로 피지에서 가공한 수산물이 IEPA 기준 원산지로 인정돼 EU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국 선박에서 원료 공급을 받고, EU 수출 확대·가공업체 수익 증대·일자리 창출·어업·제조 성장 촉진을 기대하며, 피지를 고부가가치 해산물 생산의 지역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 마. 기타사항

□ 중국-피지, 군사기지 아닌 역량강화, 평화유지 중심 방위협력 추진

- 중국은 피지·태평양 지역에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없으며, 방위 협력을 훈련·재난 대응·평화유지 등 개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올해 약 60명의 피지 군 인원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며, 피지 국방부는 이를 상호이익 기반의 다자 협력 기조 속에서 이어가겠다고 했음.

## ◆ 9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NB 인터네셔널	SNB 101호	2025-08-23/ 2025-06-25	휴식 및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10.	TOTAL	\$1,349/MT	MGO	내주변동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300/ ton	로인가공용(PAFCO)

### 라. 해양 수산업 동향

- 피지·통가·바누아투, 해양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5개년 지역 이니셔티브 출범
  - 피지·통가·바누아투가 저탄소 해상운송 로드맵과 MR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5개년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선대 현대화를 추진함. 피지는 2,100만 달러를 투자해 시범 인프라와 MRV를 구축하며, 이번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GGGI·한국 해양수산부가 협력함.
- 피지 수바에 IMO 지역사무소 개설...태평양 해양안전·탈탄소화 허브로 출범
  - 피지 수바에 개설된 IMO 지역사무소(RPO)가 태평양의 해양안전·오염방지·탈탄소화·법률개혁을 지원하며 역량 강화의 허브로 출범함. Ro Filipe Tuisawau 장관은 기후변화와 해양 거버넌스 위기를 지적하며 피지 교통부문 탈탄소 전략을 RPO가 국제기후 목표에 맞춰 뒷받침할 것이라 밝힘. IMO 사무총장과 SPC 부사무총장도

RPO가 지역 협력과 Pacific One Maritime Framework의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함.

- 솔로몬, PIF 회의 참가국 제한 결정…피지 총리 “태평양 지역 분열 심화 우려”
  - 피지의 Sitiveni Rabuka 총리는 솔로몬제도가 다가오는 PIF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약 20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포럼의 통합과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는 과거 마이크로네시아 탈퇴 논란 때 피지가 부당하게 비난받았으며 포럼의 정신과 파트너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솔로몬제도 Jeremiah Manele 총리는 이번 결정이 주권적 판단이며 기후재정과 ‘평화의 바다’ 구상 등 핵심 의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만과 수교 중인 태평양 국가들의 반발과 미·중 간 긴장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Rabuka 총리는 지역 연대가 필요하다고 분열을 경계함.

#### 마. 기타사항

- 피지, 관광수입 사상 최고치 기록…미·중·영 시장 성장 주도
  - 피지는 2023년 7~9월 분기 7억7,500만 달러로 최고 관광수익을 올렸으나 2024년 1~3월 비수기에는 4억4,1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4~6월 7억1,700만 달러로 회복하며 전년 대비 16.3% 증가함. 미국은 41.8%, 중국은 150%, 영국은 58% 성장했으며, 호주·뉴질랜드가 여전히 주축이나 신흥시장 성장으로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피지 농업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 중국은 피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이는 중국대사가 농업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강조된 바 있음. Zhou Jian 주피지 중국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농업분야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기술협력, 지식공유,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잠재적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함.

- 피지 무역, 주요 파트너국 수요 변화 반영하며 수출·수입 혼조세
  - 피지는 대중국 수출이 금·목재칩·카바 중심으로 2,360만 달러로 늘고 대미 수출도 3,55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며 일본·싱가포르 수출도 상승함. 수입은 싱가포르가 1억4,300만 달러로 최대이며 중국·뉴질랜드·일본·호주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 재수출은 통가로 42.7% 감소했지만 싱가포르·투발루는 증가했고 중국은 30.5% 감소함. 이는 주요 파트너국의 수요와 무역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임.

### 3. 파푸아뉴기니

#### ◆ 7월 보고서

#####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7.08.	TWL Logistics Ltd	K3.2266=USD 0.7734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PNG 수산정책의 변화
  - PNG 주낙어선 라이선싱 시스템 변화와 중국 기업 진출
    - 2025년 7월 기준 파푸아뉴기니(PNG)에서 참치 주낙어선(Longliner)에 대한 라이선싱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기존에는 항공물류를 통한 일본 수출을 전제로 한 빙장선 조업과, 외국 국적선의 컨테이너 수출형 냉동업 조업 두 가지 방식이 허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 선박의 PNG 국적 전환, 그리고 수산청(NFA)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직접 참치 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만간 중국계 주ña어선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됨. 이는 PNG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고수해 온 자국민 중심 수산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부정부패가 수산업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한 대표적 사례로 해석됨.

○ 수산업 내 중국 진출의 부작용 사례와 우려

- 이미 건해삼 산업과 Torres Strait 바닷가재 어업에서도 중국인의 진출로 인해 자국민 보호정책이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이 훼손되었음. 무분별한 자원 남획, 불법조업, 금지된 전기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연안 주민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치안 부재까지 초래되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중국 기업의 문제점은 현지 법질서와 환경 보호에 대한 무시,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있으며, 이는 결국 자국 어민의 몰락과 자원 고갈을 불러옴. 그러나 부패가 만연한 정부 구조 속에서 오히려 중국식 사업 모델이 자국 기업보다 우대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

○ 한국 수산업의 대응 가능성과 기회 요인

- 중국 선단의 진출 허용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보면 한국 수산업에도 PNG 진출의 문이 열린 셈임. 단, 이에 따르는 조건과 정책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한국은 단기 이익 중심의 중국과 달리, 장기적 파트너십과 선진 수산기술을 바탕으로 PNG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접근이 가능함. 특히 정부 간 협약 및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국 수산업 쇠퇴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업구역 안정 확보와 양국의 수산 자원 관리에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음. 한국은 기존의 소극적 원양 진출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외교 차원에서 식량 안보 및 개도국 지원의 전략적 수단으로 수산 외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8월 보고서

###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8.08.	TWL Logistics Ltd	K3.3177=USD 0.7871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 PNG의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

- 지난 7월 26일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장관, 청장 및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수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였음. 지난 23년에 싱가포르에 파푸아뉴기니 수산물 마케팅을 위하여 상점 및 냉동고 지원 등을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장의 지도하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홍콩 및 중국 광둥성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오던 바, 이달에 파푸아뉴기니 측 정부 요인의 방문이 이뤄졌음.
- 이러한 배경에는 PNG의 수산업자들의 수준 미달로 인하여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제약(정보 및 지식)이 원인으로 보여짐. 수산청은 자국 어민들과 자국 수산업자들의 원활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형태의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푸아뉴기니 자체 수산업계의 규모가 미미한지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현지 수산업계의 성장 여부가 숙제로 남음

### □ 일본정부의 PNG 무상원조 및 JICA의 연안개발 사업

- 수산청 소식에 의하면, 일본이 무상원조로 수산청에 9100만불을 지원한다고 함. 이는 부두 확장 및 보수 지원사업과 2척의 신조 경비정 지원을 통하여 인니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함임. 또한, 지방 몇 곳에 수산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함. 이로인하여 일본 선망선들은 입어료 협상 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함. 위에 언급된 경비정 2척에 대해선 지난 2022년에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파푸아뉴기니 지원사업으로 진행,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조사관 2명이 파푸아뉴기니 수도에 방문하여 수산청 및 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무소식이었음.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동 건에 대한 무상지원을 한국과 일본 동시에 요청 했었던 것으로 보임.

- 일본 JICA 현지 Coastal Develop 사업이 2023년 말서부터 Gulf of Papua 지역 2곳에서 진행이 되어 왔음. 지난 7월 31일 동건과 연관된 일본인(5명)과 현지사업가(1명)이 본사를 방문하였음. 방문 목적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함. 일본인중 1명은 이곳에서 JICA 단원으로 활동하여 현재는 PNG새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들은 현지에 태양광 발전으로 돌리는 냉동고를 지원해주고, 현지인들의 어업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어업 전문가 2인과 YAMAHA에서 파견된 2명이 포함되어 있음. 두번에 걸쳐진 미팅을 통하여 현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의 조언을 해주었음.
- 위에서 본 중국과 일본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PNG 수산청으로선 중앙정부의 수산청에 대한 압력 (중국기업 진출에 협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과 일본 선망선 입어료의 저가 입찰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남.
- PNG 수산청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했던 경비정 2척의 건도 흐지부지 되었으며, 민간기업의 진출은 입어료를 지불하는 것 외엔 거의 없는 바, 수시로 불평을 해왔음. 이에 본인은 금년 12월 KOICA의 PNG 사무실 개설 시,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고, PNG 수산업자 및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실질적으로 35년간의 PNG 세월에서 한국과 PNG간 수산분야에 대한 협력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해수부, 대사관, 원양산업협회, KOICA를 통하여 명년에는 어떠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하겠음.

## ◆ 9월 보고서

###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9. 8.	TWL Logistics Ltd	K3.2277=USD 0.763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내용	기타
2025. 9. 6. / Savanna Restaurant	우리 선망선의 입출항 편의를 도모하고, 어선 및 운반선의 입항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설명함. 또한 입출항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PNG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 다. 해양수산업 동향

#### □ PNG 수산업 동향

##### ○ 해삼사업 실시

-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2020년부터 시행해온 금어기를 10월 해제하여 채취·가공·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8월 공고 이후 200건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됨. 수산청은 외국인(특히 중국계) 진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중국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부패와 고위 공무원 개입으로 개혁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큼. 금어기 동안에도 불법 조업이 계속됐고, 수산청은 공권력 투입 대신 금어기 연장으로 문제를 악화시켰음. 2025년에도 다수의 라이선스 발급이 예상되나, 결정이 3주 전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 ○ PNG SEZ(Special Economy Zones) Summit 2025

- 8월 29~31일 포트모레즈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특구 정상 회의는 총리 기조연설과 투자부 장관 리처드 마루의 주재로 개막했으며, 기존 외국 투자기업과 중국 수산업 대기업들이 참석함.
- 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국제무역투자부 산하 SEZA가 설립돼 수입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Madang주 PMIZ 지역은 30년간 지연된 참치 가공 프로젝트가 현정부의 관심 속에 재추진 중임.
- 이를 위해 수산청 산하 FCL이 투자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청과 국제무역투자부가 경쟁적으로 지원 중임. 또한 라바울과 라에 지역도 참치 가공공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라에는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만 부두 협소가 문제로 지적됨.

## 4. 아르헨티나

### ◆ 7월 보고서

####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7. 9.	Epsol YPF (국영기업)	Usd 1.14 /Liters	MGO	환율안정과 개선되는 정책으로 각종 수입자원의 단가 하향조정

####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내용	기타
2025. 6. 18 / 마르델 플라타 경찰서	구속 수감중인 한인 수산업자 면회 및 법적조언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으로 4월9일 인터폴에 의해 체포된 76세 한인수산무역업자가 본국 송환을 거부하여 연방경찰서에 수감 된 지 2개월 만에 고령을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석방되도록 유도/출감 시킴

##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메르코수르(Mercosur)는 관세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유럽 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추진
  - 2025년 7월 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6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는 공통대외관세(CET) 예외 조항 확대가 결정되어, 회원국들이 최대 5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르헨티나는 이를 계기로 EU 등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이어진 EU와의 협상은 2025년 말 체결을 목표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음. 특히 EU와의 FTA는 수산물 관세(현행 12%)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연안 경제와 수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메르코수르 주요국들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는 수산물의 무역 통제를 완화하는 규칙을 폐지
  - 2025년 7월, 아르헨티나 농림축산수산부는 결의안 119/2025를 통해 2004~2011년 ONCCA가 제정한 수산물 거래·운송·문서화 관련 7개 주요 규정을 폐지했음. 이는 법령 70/2023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조치로, 로밍 등록, 문서화 의무, 운영자 등록 요건 등 현재의 디지털 행정 체계와 맞지 않는 절차들을 제거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궁극적으로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임.
  
- 오징어: 북파타고니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역사적 성과
  - 2025년 아르헨티나 오징어 시준은 최근 17년 중 최고 수준인 약 204,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 증가했음. 북부 파타고니아-부에노스아이레스 재고(SBNP) 지역의 자원이 지난 28년간 가장 풍부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지거선단 78척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 선박이었음. 북위 44도 기준 남북 해역 모두에서 고른 어획이 이뤄졌고,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선박의 성과가 두드러졌음. 전문가들은 2024년 번식기의 이상적인 해양 환경과 높은 알 부화율,

유충 생존율이 이번 풍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노르웨이와 중국 함대가 남극 크릴새우를 황폐화시키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극 크릴새우 산업은 노르웨이와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첨단 선박과 해상 가공 시스템을 통해 공해에서 대량 어획이 이뤄지고 있음. 2023년 기준 세계 크릴 어획량의 67%는 노르웨이, 17%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중국은 대형 선박 확충을 통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EEZ 인근의 무규제 환적·보급 활동이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CCAMLR는 어획량 제한과 구역별 규제를 추진 중이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보호 조치가 무산되고 있음. 반면 노르웨이는 보존 조치를 일부 지지하면서도 산업 확대에 참여하고 있음. 크릴 산업은 기능성 식품, 사료를 넘어 글로벌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비용이 커지며, 규제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와 자원 중심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8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8. 12	EPSOL YPF (국영기업)	USD 1.14 /Liters	MGO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 8. 4./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표창장 수여식 및 아그네스 원양선사 임원분들과 오찬

## 다. 해양·수산업 동향

### □ 홍어등 연골어류에 대한 어획량조정

- 해양전선 합동기술위원회(CTMFM)는 결의안 No.8/2025를 통해 리오데라 플라타와 해양 전선 지역의 가오리 어획량을 조정하기로 함. 상반기 할당량이 소진되지 않아 남은 1,161톤(해안 가오리)과 2,273톤(고고도 가오리)을 하반기 할당량에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7~12월 기간 동안 최대 2,411톤의 해안 가오리와 3,773톤의 바다 가오리 어획이 가능함.
-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공유하는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잉여 할당량 이월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어업 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 INDEC에 따르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능가

- 아르헨티나의 임금은 2025년 들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구매력이 개선되었지만, 외부 수익성 부족이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음. 5월 기준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5.7%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은 1.5%로 둔화되며 실질 소득이 회복되었음.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상업·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1300페소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산업의 달러 비용은 여전히 상승 중임. 여기에 높은 금리와 금융 시스템의 공공 자금 조달 편중, 지방·국가 차원의 세금 부담이 민간 부문 성장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실질 소득 개선과 동시에 수출 경쟁력, 외환 창출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와 생산성 둔화가 고용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큼.

### □ 티에라 델 푸에고는 스페인, 한국, 중국에 말비나스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

- 티에라 델 푸에고, 남극 대륙 및 남대서양 제도 정부는 스페인·

한국·중국 대사관에 공식 서신을 보내, 말비나스·사우스 조지아·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인근 12해리 이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선박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음. 주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불법일 뿐 아니라 국가 어류 자원에 피해를 주고, 남대서양에서의 영국 점령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음.

- 말비나스 영국 정부가 다양한 국적 선박에 어업 면허를 부여하는 관행을 아르헨티나 측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로 거부하며, 최근 아르헨티나 해군청과의 협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추적 기능을 강화했음. 이에 따라 푸에지 당국은 무허가 어업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보호를 추진할 방침임.

□ 포클랜드 제도: 3년 연속 위험에 처한 롤리고 오징어의 겨울 시즌

- 포클랜드 제도의 롤리고 오징어 겨울 어업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8월 7일부터 48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3년 연속 같은 사유로 시즌이 중단되었음. 당국은 시즌 초 추정치 29,735톤에서 점차 14,722톤(최저 신뢰치 6,539톤)까지 감소한 바이오매스 수준을 근거로 보존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조치는 오징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제도 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주며, 향후 과학 조사와 재평가를 거쳐 시즌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현재 Pescapuerta, Pereira 등 스페인계 기업을 포함한 16척의 선박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계는 수산부의 다음 발표를 주시하고 있음.

□ 페루, 멸치 자원 보호 위해 2025년 첫 어획 시즌 조기 종료

- 페루 정부는 어린 개체의 비율 증가로 멸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자, 중북부 지역의 2025년 첫 멸치 어획 시즌을 7월 24일 조기 종료함. 이 조치는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번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히 시행되었음.
- 당초 300만 톤의 총 허용 어획량(TAC)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어획량은 246만 톤(목표의 81.9%)에 그쳤음. 이는 세계 최대 멸치 어업이자

글로벌 어분·어유 산업의 핵심인 페루 어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관리가 장기적인 자원 보존의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했음.

- 페루, 대왕오징어 남획 방지 위해 6월 30일부터 기술적 금지 조치 시행
  - 페루 정부는 2023~2024년 엘니뇨 영향과 빠른 남획으로 인해 대왕 오징어(Dosidicus gigas)에 대해 6월 30일부터 기술적 금지 조치를 도입했음. 상반기에만 42만 톤이 잡히면서 자원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자이언트 오징어 작전 III’ 연구 캠페인을 실시해 페루 전 해안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어민 참여에 기반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9월 보고서

###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9. 9.	EPSOL YPF (국영기업)	USD 1.16 /Liters	MGO	환율 8% 상승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아르헨티나, 불법, 미신고, 무규제 어업(IUU) 반대의 날 2025년 9월 3일 행사진행
  - 아르헨티나는 9월 3~5일 산마르틴 궁전과 수산부 본부에서 불법·미보고·무규제(IUU) 어업 반대 국제회의를 열어 해양 자원 지속 가능성과 남대서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 전략 강화를 추진함.
  - 취임식은 파올라 디 키아로 장관과 로페스 카소를라 차관이 주재했으며, 외국 선단 감시를 위해 실시간 제어 도구·EEZ 순찰·위성 기술이 소개됨. 칠레·페루·CALAMASUR의 지역 경험 공유와 함께 IUU 어업 대응 국가 행동계획 업데이트가 발표될 예정이며,

WTO 어업 보조금 협정 비준과 맞물려 불법 조업 보조금 금지와 마일 201 활동 억제 등 해양 보호 의지를 강조함.

□ 마르델플라타 어업 위기: 대규모 해고 사례 속출

-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의 중견 수산기업 Ostramar는 국제 대구 필레 시장 가격 하락과 경영난 속에 등록 필렛 노동자 50명을 해고했음. 이들은 3개월 이상 업무와 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뒤 해고됐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해 최대 18회 분할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불안정 근무 형태로 복직을 제안함. 이는 지역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노동 위기와 맞물려 Apolo Fish, Gaveteco 등과 유사한 대규모 해고·퇴직금 축소·비공식 고용 전환이 반복되는 상황임.

□ 페루, 오늘 대왕오징어 낚시 재개 : 2025년 8월 25일

- 페루는 2025년 오징어 어업을 504,000톤 할당량과 2단계 어획 방식으로 재개하며 지속 가능성과 어업 통제를 강화함. 대왕오징어는 2024년 상반기에만 421,600톤이 잡혀 전년 대비 200% 증가해 6월 조기 중단됐으나, 과학 조사 결과 자원이 여전히 건강한 수준으로 확인돼 어획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1단계는 8월 25일~10월 31일 장인 선박 39,984톤, 2단계는 11월 1일~12월 31일 42,432톤이 허용됨.

**5. 인도네시아**

**◆ 7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7.07	Pertamina	Rp15.980 (\$0.99) per Liter	디젤유 (MDF)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섬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니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이나 소도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온라인상 불법 섬 매매 광고에 대해 해양수산부(KKP)와 정보통신디지털부(Komdigi)가 협력해 대응 중임. 섬은 매매 대상이 아니며, 일정 조건 아래 사용·투자만 가능하고, 최소 30%는 공공 목적 등으로 보존돼야 함.
  - 정부는 소도서 정보 공개, 광고 차단,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생태관광·해양보전 등 친환경적이고 공공성 있는 활용만 허용함. 이는 2024년 제정된 장관령과 연계되어,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중시한 정책 방향을 따름.
  
- 인도네시아, 산호초 보호 위해 세계 최초의 성과채권 도입
  - 인도네시아는 산호초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세계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성과채권(Indonesia Coral Reef Bond)’ 을 도입했음. 이는 민간 자금을 유치해 산호초 회복, 지속 가능한 어업, 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임.
  - 총 190만 헥타르의 3개 핵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IUCN 기준에 부합하는 생물량 증대 등 실질적 보전을 목표로 함. 이는 해양 번영 프로젝트(LAUTRA)와 연계되며, 세계은행·IUCN 등과 협력해 UN 해양회의(UNOC 3)에서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 인니 해양수산부, 석유·가스 산업 위한 해양공간 허가 절차 신속화
  - 인도네시아는 해양공간계획총국을 통해 석유·가스 산업 등 해양 활동에 필요한 해양공간사용 적합성 승인(KKPRL) 절차를 신속화하고 있음.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간소화 정책(Cipta Kerja 법)의 일환으로, 2021~2025년 동안 KKPRL 승인 121건이 발급

되었음.

- 해양은 다층적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며, 특정 구역이 아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함. 정부는 국가해양공간계획(RTRWN)을 재검토해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20년 장기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인허가 기준으로 반영할 방침임.

## ◆ 8월 보고서

###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8.05	Pertamina	Rp15,980(\$0.99) per Liter	디젤유(MDF)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바다거북과 고래류 보호 위해 다자간 협력 추진

- 인도네시아는 바다거북과 고래류 등 보호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2025-2029 국가행동계획(RAN)을 추진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최근 발리에서 열린 공개 협의회에는 KKP, WWF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알람 보전재단을 비롯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 이번 회의에서는 ▲바다거북 보전 거점 설립, ▲좌초 해양포유류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연안·해상 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 등을 주요 전략으로 논의하였으며, 실행 목표와 지표, 우선 지역, 책임 주체를 정리한 매트릭스가 공유되었음. 참석자들은 조속한 계획 완성과 현장 중심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번 계획은 향후 보호종의 통합적·지속 가능한 보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스텔리나’ 국제 표준으로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

(GDST)와 협력해 국가 수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스텔리나 (Stelina)\*\*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을 밝힘. 스텔리나는 QR코드를 통해 수산물이 양식·어획부터 유통, 소비자 전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는 인도네시아 수산물이 불법 어업이 아닌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쉽게 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과 국제 신뢰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실제로 2024년 인도네시아는 새우(16억8천만 달러, 전체 수산 수출의 28.2%)와 참치류(10억3천만 달러, 17.4%)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록했으며, 미국·일본·유럽·아세안·중동이 주요 시장임. 업계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새우·참치 등 전략 수산물의 수출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 기대를 포함.

□ 인도네시아정부, SEAFDEC와 협력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추진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수산개발센터 내륙어업자원관리개발부 (SEAFDEC/IFRDMD)와 협력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7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생 생태계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전략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발전”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일본-아세안 통합기금 (JAIF) 지원으로 동남아와 일본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음.
- 인도네시아는 이미 ▲ ‘바다사랑의 달’ 쓰레기 수거 캠페인, ▲ 방치된 어구(ADLFG) 처리, ▲어항 내 쓰레기 관리, ▲정책 집행 강화, ▲포용적 환경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시행 중임. 이번 워크숍은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음.

## ◆ 9월 보고서

###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9. 5.	Pertamina	Rp15,970(\$0.99) per Liter	디젤유(MDF)

## 나. 해양·수산업 동향

### □ 한국-인도네시아 간 해양분야 장학사업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및 한-인도네시아 해양기술협력연구센터(MTCRC)와 함께 KIOTEC-CEA 장학사업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해양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UN ‘지속가능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의 일환으로 석사 장학금, 전문 교육·훈련, 공동 연구, 연구자 교류 등을 통해 현재까지 6개 대학에서 40명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석사 장학생 논문 세미나에서는 12명의 학생이 연안 생태계, 수산 기술, 응용 해양학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본 사업이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에서 새 프로그램 출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며 북자카르타 까말무아라에서 맹그로브 숲 개발 사업을 시작함. 이 사업은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 ▲해양 생태계 복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 맹그로브 구역을 복원·보전·교육·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202종의 토종 맹그로브 식재 및 첨단 양식 시설 구축을 추진함.
- 이번 행사는 700여 명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맹그로브 숲이 해안 방어와 블루카본 저장의 핵심 자원임을 강조함. 정부는 이를 통해 쓰레기 관리, 환경 보전, 지역 경제 발전을 아우르는 블루이코노미 정책 실현 사례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깨끗한 바다와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다거북알 밀수사건

○ 인도네시아는 서칼리만탄 삼바스군 카펫 섬파룩 항구에서 적발된 바다거북 알 5,400개 밀수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월 12일 용의자 MU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함. MU는 7월 12일 합동 작전 중 체포됐으며 공범은 군사경찰 관할로 조사 중임. 제출된 증거는 휴대전화 2대, 거북 알 150개, 범행 영상 USB 등이 포함됨. 정부는 이번 사건이 보호종 보전과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강조하며, 국경 지역 감시 강화를 지시함.

**6. 가나**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5/	선박수리	Tema	체항중
Afko	Afko 808	2025-03-15/	신규선박 입어권 수속중	Tema	체항중
Panofi	Master	2025-06-05/ 2025-06-09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6-09/ 2025-06-12	전재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06-01/ 2025-06-05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6-07/ 2025-06-1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6-01/ 2025-06-0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6-01/ 2025-06-05	전재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6-14/ 2025-06-17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6-20/ 2025-06-22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6-27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6-30/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6-27/	하역	Tema	하역중
Rico	Rico Siete	2025-06-29/	하역	Abidj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5-28/ 2025-06-02	하역	Abidj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6.30	GHANA OIL(GOIL)	USD 830 / K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76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150 /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한국대사관, 한국 교민들과 Krowor 해변 청소

- 가나 아크라 인근 Krowor 해변에서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기념해 대규모 해변 정화 활동이 열렸음. 본 행사는 NGO 플라스틱

편치가 주최하고, 주거나 한국대사관과 한국상공인공동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KOICA, KOFIH, EXIM Bank, 그리고 여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약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함. 이는 한국 기업·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박경식 대사는 이 활동이 한-가나 간 해양 환경 보호의 공동 책임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문화적·환경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플라스틱 편치 측은 수거 데이터를 통해 오염원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모두가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음.

#### □ 어업위원회, 금어기 카누어업 면제 효과 데이터 분석

- 가나 어업위원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카누 어업인에 대한 7월 금어기를 면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병행하기로 함. 해양국장 Esi Bordah Quason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원 변화와 어획량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힘. 가나 어업위원회는 금어기 이전에도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하며, 자원 보호를 위해 모라토리엄, 어선 크기 제한 등 추가 보존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음. 특히 산란장 보호의 필요성과 생계 대안 부족으로 금어기 조업 중단이 어려운 어업인의 현실을 강조하며, 양식업 전환도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설명함.

#### □ BSM, RMU에 해양 교육 센터 개소

- 베른하르트 숄트 선박 관리국(BSM)은 가나 아크라의 지역 해양대학교(RMU)에 ‘BSM 해양 훈련 센터’를 공식 개소하며, 지역 및 인근 국가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함. 이 센터는 교실, 작업장, 계류장, 숙소 등 첨단 시설을 갖췄으며, RMU 총장은 2012년 이후 BSM이 600명 이상의 사관생도를 선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협력을 인재 투자로 평가함.
- 개소식에는 GMA, RMU, BSM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BSM 회장은

자격 있는 트레이너 채용과 취업 연계를 약속함. GMA 사무총장은 이 센터를 다양성과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가나의 해양 리더십 강화를 촉구함. RMU 부총장 대행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할 호스텔 건립에 대한 BSM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학계와 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 8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5/	수리	Tema	체항수리중
Afko	Afko 808	2025-03-15/ 2025-07-31	신규어선 도입 및 등록 수속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07-29/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Commander	2025-07-25/ 2025-07-28	하역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07-16/ 2025-07-2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7-30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Path finder	2025-07-16/ 2025-07-19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7-14/ 2025-07-17	하역	Abidjan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7-15/ 2025-07-18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6-20/ 2025-06-22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3	2025-07-31/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ueen	2025-07-21/ 2025-07-26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5-07-18/ 2025-07-22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07-29/	수리	Abidjan	체항수리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8-25/	수리	Abidjan	체항수리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7. 31.	GOIL	USD 870 / K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76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5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50 /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200 /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가나 의회, 2025년 어업 및 양식 법안 통과

- 가나는 어업 및 양식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어업 및 양식 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기존 2002년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EU 및 미국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통령 서명 후 어업 위원회가 신설되어 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 개정은 EU의 수출 제재를 피하고, 어업 부문의 경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됨.

□ Blekusu 해안선 확보 - Mahama 대통령, 보호 프로젝트 시작

- 가나 Mahama 대통령은 Volta 지역 남 Ketu 시에서 Blekusu 해안 보호 프로젝트 2단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 이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와 해일 침식으로부터 해안 지역 사회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탄력적 대응책으로, Blekusu, Agavedzi, Salakope 등 5개 지역에 8km 해안선 보호를 위한 37개 방파제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임.
- 대통령은 지역 생계 보호를 위한 현대식 수산시장, 냉장·가공·위생 시설 등 사회기반 인프라와의 통합 계획도 발표했으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함.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시작된 1단계의 연장선으로, 침식 피해에 대응하는 긴급 조치이자 국가 개발의 일환임.

□ 가나, 새로운 유엔 해양 및 해양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됨

- 가나는 UN 글로벌 콤팩트가 출범한 해양 보존 및 청정 에너지 촉진 프로그램인 ‘오션 센터’ 이니셔티브의 선도국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해양 재생에너지 전환과 해양 안전·보존을 위한 지역 주도형 협력 플랫폼임.
- UN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접근성 개선, 글로벌 금융 개혁 등을 강조하며 정의롭고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음.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능력의 1.5%에 불과해,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지적함.
- 가나는 해안선, 블루이코노미 잠재력, 해양 역량을 바탕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력·풍력·태양광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정 에너지 확산, 해양 감시 강화, 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해당 플랫폼은 정부·지역사회·민간·학계 간 연계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해양 개발 목표를 통합할 예정임.

## ◆ 9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8-26/	하역 및 기관점검	Tema	수리중
Afko	Afko 808	2025-08-05/	하역 및 기관점검 수리	Tema	수리중
Panofi	Master	2025-08-21/ 2025-08-2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8-20/ 2025-08-22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08-29/ 2025-08-3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3-15/ 2025-05-0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8-27/ 2025-08-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08-25/ 2025-08-29	하역 및 점검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8-13/ 2025-08-15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8-06/ 2025-08-1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5-08-21/ 2025-08-27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ueen	2025-08-28/	하역	Tema	하역중
Agnes Park	Agnes 1	2025-08-15 / 2025-08-19	하역	Tema	조업중
Rico	Rico siete	2025-08-02 / 2025-08-05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8-28/	하역	Abijdan	하역중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8. 31.	GOIL	USD 830 / K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1,760	
Skip jack tuna	3.5kg up	1,550	
Skip jack tuna	1.8kg up	1,500	
Skip jack tuna	1.8kg under	1,350	
Skip jack tuna	1.5kg under	1,200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 8. 18./ Accra Alice Hotel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CAPFISH summer academy 개막식 참석
2025. 8. 29.		Tema 부두, 훈증 단지 건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교류

마. 해양·수산업 동향

- 가나 카누 어업인 전용 어업해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어업 법안
  - 가나는 대통령 승인을 앞둔 2025년 새로운 수산양식법을 통해 카누 어업 전용 구역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까지 확대하여 불법적으로 연안에 침범하는 산업용 트롤선에 대응할 계획이다. 법안은 불법·규제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과 소규모 어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노르웨이 정부 지원으로 열린 중앙 지역 어류 박람회

는 어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과 품질 관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증된 85개 생선 훈증 가공 시설을 활용한 무료 훈련이 시작되었다. 행사에서는 어업인들이 시장 접근과 생계 향상을 위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강조되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주최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행사 가나에서 개최

-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8.18~29)” 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수산부 지원 아래 세계해사대학(WMU)과 공동 주최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안개도국과 군소 도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5개년 다자성 ODA 사업으로, 권역별 맞춤형 교육, 교재·성과보고서 발간 등을 포함해 약 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 이번 가나 아카데미에는 가나, 세네갈, 탄자니아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 공무원과 전문가 약 40명이 참여했으며, 소규모 어업·해상 범죄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박경식 주가나 한국대사가 참석해 한국의 수산업 경험 공유와 불법어업 근절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가나 Tema 어항을 방문해 금어기 종료 후 출어 준비 중인 중국 트롤선과 참치 선망선 하역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현장 이해를 높였다.

□ KMI 수산 ODA 지원 사업으로 Tema 의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현대적인 생선 훈연장 단지 건설 착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한국 수산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가나 Tema 카누 선착장 인근 350평 부지에 현대식 생선 훈연장과 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나 수산위원회 및 수산양식부와 협력하여 2023~2026년, 약 4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여성 어업인의 가공·유통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 식량안보 기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내용은 △훈연·수로·냉장고 등 가공·보관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여성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다. 현재까지 기초선 조사, 현지 실태 조사, 정책결정자 연수,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향후 개보수 시공과 전통기술을 접목한 아프리카 훈연가공시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공·유통 역량 강화와 어획 손실 감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와 가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향한다.

## 7. 세네갈

### ◆ 7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GRANADA	2025-06-02/ 2025-06-0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EGALUZE	2025-06-12/ 2025-06-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06-14/ 2025-06-19	하역	다카르항	
스페인회사	ZEBERoi	2025-06-21/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INT DE ST LOUIS	2025-06-21/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ALBONICA	2025-06-22/ 2025-06-24	하역	다카르항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6. 26.	다카르항	550 EURO/L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20/MT	
YF	3.4-10kg	\$1,420/MT	
YF	1.8-3.4kg	\$1,320/MT	
YF	1.5-1.8kg	\$1,170/MT	
YF	1.5kg under	\$970/MT	
SJ	3.4kg up	\$1,370/MT	
SJ	1.8-3.4kg	\$1,320/MT	
SJ	1.5-1.8kg	\$1,170/MT	
SJ	1.5kg under	\$970/MT	
BE	10kg up	\$1,170/MT	
BE	3.4-10kg	\$1,170/MT	
BE	1.8-3.4kg	\$1,170/MT	
BE	1.5-1.8kg	\$1,020/MT	
BE	1.5kg under	\$820/MT	

#### 라. 기타사항

- 세네갈 - 기니비사우: 전통 어업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
  - 세네갈과 기니비사우는 어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양자 협정 이행 의정서를 체결했음. 이를 통해 세네갈 어민들은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통 어업 분야의 협력이 재개됨.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연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며, 세네갈의 디우프 장관은 협상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합의가 상호 이익을 위한 타협의 결과임을 강조함.

## ◆ 8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LAYA LAGA	2025-07-02/ 2025-07-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EGALUZE	2025-07-02/ 2025-07-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7-04/ 2025-07-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07-07/ 2025-07-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7-09/ 2025-07-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07-18/ 2025-07-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DA	2025-07-20/ 2025-07-23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BREEZE	2025-07-21/ 2025-07-23	하역	다카르항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7. 25.	다카르항	557 EURO/MT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75/MT	
YF	3.4-10kg	\$1,475/MT	
YF	1.8-3.4kg	\$1,375/MT	
YF	1.5-1.8kg	\$1,225/MT	
YF	1.5kg under	\$1,025/MT	
SJ	3.4kg up	\$1,425/MT	

SJ	1.8-3.4kg	\$1,375/MT	
SJ	1.5-1.8kg	\$1,225/MT	
SJ	1.5kg under	\$1,025/MT	
BE	10kg up	\$1,225/MT	
BE	3.4-10kg	\$1,225/MT	
BE	1.8-3.4kg	\$1,225/MT	
BE	1.5-1.8kg	\$1,075/MT	
BE	1.5kg under	\$875/MT	

####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세네갈, 참치 가공 산업에 주목하다: 한국 기업의 협력 기대

- 세네갈 대통령은 한국의 동원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참치 어업 및 통조림 가공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핵심 의제는 수산물의 현지 가공으로, 이는 세네갈의 대유럽·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평가됨. 동원그룹은 세네갈을 수산물 가공 및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세네갈’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동원그룹 부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더한 수산물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함. 세네갈 정부도 어업부를 통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유망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로 평가했음.
- 이번 협력은 세네갈의 국가 전략인 ‘세네갈 신흥 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 과도 부합함.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수출 수산물의 고급화가 기대되며, 동원그룹 역시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 9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스페인회사	ALBONIGA	2025-08-02/ 2025-08-0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 DE ST LOUIS	2025-08-03/ 2025-08-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FRONTIER	2025-08-03/ 2025-08-0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RTM KIM	2025-08-04/ 2025-08-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8-05/ 2025-08-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8-17/ 2025-08-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NT DE ST LOUIS	2025-08-18/ 2025-08-2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MONTECELO	2025-08-21/ 2025-08-2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P ATLANTIQUE	2025-08-22/ 2025-08-25	하역	다카르항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8. 26.	다카르항	527 EURO/MT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595/MT	
YF	3.4~10kg	\$1,495/MT	
YF	1.8~3.4kg	\$1,395/MT	

YF	1.5~1.8kg	\$1,245/MT	
YF	1.5kg under	\$1,045/MT	
SJ	3.4kg up	\$1,445/MT	
SJ	1.8~3.4kg	\$1,395/MT	
SJ	1.5~1.8kg	\$1,245/MT	
SJ	1.5kg under	\$1,045/MT	
BE	10kg up	\$1,245/MT	
BE	3.4~10kg	\$1,245/MT	
BE	1.8~3.4kg	\$1,245/MT	
BE	1.5~1.8kg	\$1,095/MT	
BE	1.5kg under	\$895/MT	

## 라. 해양·수산업 동향

### □ 말리 화주위원회의 다카르 사절단, 컨테이너 해제 위해 파견

- 말리 화주위원회(CMC)는 바키시마 실라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8월 20일부터 다카르에 파견해 다카르 자유향에 억류된 말리 컨테이너 해제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 다카르 항은 말리 수입·수출 물량의 약 60%가 통과하는 주요 관문으로, 매일 1,000대 이상의 트럭이 다카르-바마코 회랑을 오가지만 항만 혼잡으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체류해 체선료와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필수 소비재 공급 지연 및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CMC는 세네갈 항만 당국과 협력해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산디아라 내륙항 건설과 다카르-바마코 철도 재활성화 등을 통해 항만 혼잡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자 함. 이번 임무는 말리 경제 운영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8. 뉴질랜드

### ◆ 7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5-06-18/ 2025-06-20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5-07-02/ 2025-07-03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6-30/ 2025-07-03	하역 및 연간 수리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6-25/ 2025-06-27	유류 및 하역	DUNEDIN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1.07	Z	939 USD/MT	MGO Dunedin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BARRACOUTA	2L/L/M/S	1900/1850/1750/- USD/MT
SQUID	2L/L/M/2M/S/2S	5350/5450/5700/5500/3750/- USD/MT

####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의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 요약

- 2025년 6월 24일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어업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속 가능성 수치: 뉴질랜드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해역을 포함한 남서태평양 지역의 85.5%의 어족 자원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쿼터 관리 시스템(QMS): 1986년 도입된 QMS는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 성과가 강조되었음.
- 협력의 결과: 어부, 과학자, 지역 보호자(kaitiaki), 자원봉사자, 규제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세대를 거쳐 협력한 결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임.
- 법 개정 제안: 해양수산부 장관 세인 존스는 어업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Fisheries Act 개정을 제안했으며, 이는 기존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해산물(kaimoana)이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함.

## ◆ 8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7-30/ 2025-08-01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7-24/ 2025-07-25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7-23/ 2025-07-24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7-18/ 2025-07-19	유류 및 하역	DUNEDIN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8.06	Z	961 USD/MT	MGO Dunedin	

###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HOKI	2L/L/M/S	2400/2400/2200/2150 USD/MT
HAKE	3L/2L/L/M/S	6700/6700/6050/5450/5250 USD/MT

### 라. 해양·수산업 동향

#### □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 요약

-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8월 발의)은 어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개정안은 생태계 기반 어획할당량(EBS) 의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나 해양생태계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는 할당량 조정 절차를 도입했음. 또한 모든 대형 트롤선에 적용되던 선내 CCTV 설치 의무가 일부 선박으로 축소되며, 모니터링 비율도 100%에서 3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 혼획·폐기 보고는 즉시 보고에서 분기·연간 단위로 완화되고, 관찰자 배치 의무도 축소됨.
- 이와 함께 공공정보법(OIA)에 따른 어획 영상과 보고서의 공개 제한이 확대되어 국민과 연구자의 감시·검증 권한이 축소됨. 위반·제재 절차도 간소화되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일원화되고, 중대한 위반도 행정·형사처벌 수단이 줄어들음.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산업 경쟁력과 어업자의 편의를 강조하는 반면, 해양 생태계 보전과 공공의 투명성 확보 측면은 약화되는 것이 핵심임.

## ◆ 9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8-21/ 2025-08-22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9-04/ 2025-09-05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8-29/ 2025-08-30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8-26/ 2025-08-27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9.03.	Z	916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HOKI	2L/L/M/S	2000/1950/1850/- USD/MT
WAREHOU	2L/L/M/2M/S/2S	5200/5350/5750/5550/42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어업법 대개정 : 양식 산업 성장 기회와 환경 보전의 갈림길
  -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외래 해조류 카울러파가 급속히 확산되며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 해조류는 보트와 낚시 도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토착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최대 94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단체들도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

**9. 모리셔스**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PESCA-BERMEO (SPAIN)	EUSKADI ALAI (Seychelles Flag)	2025-06-02/ 2025-06-17	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Panama Flag)	2025-06-05/ 2025-06-24	하역	포트루이스
INPESCA-BERMEO (SPAIN)	ITSAS TXOI (Spanish Flag)	2025-06-26/	수리	포트루이스
COMPAGNIE FRANCAISE DU THON	CAP ST VINCENT (Bahamas Flag)	2025-06-27/	수리	포트루이스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7. 09.	ENGEN	USD 840/ per MT	MGO	

#### 다. 해양·수산업 동향

##### □ 모리셔스 - EU IUU 어업 대응 협력 대화

- 2025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EU 해사 수산총국(DG MARE)과 모리셔스 정부 간의 비공식 대화가 열려, IUU 어업 근절 협력 강화와 2024년 EU 권고사항 이행 점검이 이루어졌음. 모리셔스는 수산법 개정, VMS·AIS 규정 도입,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제도·기술적 조치를 소개하며 IUU 대응 의지를 강조했고, EU는 모리셔스를 지역 수산 허브 및 IUU 대응 선도국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힘. 양측은 2011년부터 비공식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음.

##### □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제13차 회의

- 2025년 7월 8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SWIOFC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참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도서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리셔스를 포함한 12개국과 FAO, IOC 등 국제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셔스 정부는 MTC(Minimum Terms and Conditions) 지침 채택을 통해 자원 보호와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음. 회의에서는 남서 인도양의 참치 어획 중요성과 IUU 어업, 회유성 어종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국가들이 공동 책임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 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

## 라. 일반 동향

### □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제13차 회의

- 2025년 7월 8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SWIOFC 참치어업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참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도서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리셔스를 포함한 12개국과 FAO, IOC 등 국제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셔스 정부는 MTC(Minimum Terms and Conditions) 지침 채택을 통해 자원 보호와 IUU 어업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음. 회의에서는 남서 인도양의 참치 어획 중요성과 IUU 어업, 회유성 어종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국가들이 공동 책임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 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

## ◆ 8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PESCA-BERMEO (SPAIN)	TXORI AUNDI	2025-07-27/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HEN HONG (Taiwanese Flag)	2025-07-25/	하역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CAP ST MARIE (France Flag)	2025-06-27/	수리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CAP ST VINCENT	2025-06-27/ 2025-07-30	수리	포트루이스 (CNOI)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France Flag)			
--	---------------	--	--	--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7.28	VIVO(SHELL)	USD 805	MGO	

#### 다. 일반 동향

- CHCL 53억 루피 투자 통해 포트루이스 항만 현대화... 연간 120만 컨테이너 처리 목표
  - 모리셔스 항만물류공사 (CHCL)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포트루이스 항을 친환경적이고 기술 중심의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총 53억 루피 (약 1억 1,5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계획에는 항만 자동화, 하이브리드 크레인 도입, 트럭 게이트 위치 재조정, 보관 주차 환적 공간 확장 등이 포함됨. 디지털 전환과 탄소 배출 저감이 핵심이며, 냉동 컨테이너 처리 능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류 환경도 구축할 계획임. CHCL은 이를 통해 현재 약 70만 컨테이너 수준의 처리량을 2030년까지 120만 컨테이너로 끌어올릴 방침임.
  - CHCL은 직원 및 청년 대상 교육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며, 인도 정부는 시뮬레이터 자비 제공을 위해 2,500만 루피 (약 54만 6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이는 현지 인력 양성과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참치어업 체계 구축을 다짐한 계기로 평가되었음.

#### 라. 기타사항

- 모리셔스 - 세이셸 협약: 2025년 40만km2 해양 공동관리구역 진전

- 2025년 7월 29일,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마스카렌 해저지대 공동관리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약 40만km 규모의 공동 해양관리구역과 관련된 협력을 논의함. 주요 의제로는 해양공간 계획을 통한 환경 보호, 해삼 시험 조업, 해저 탄화수소 자원 탐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민간 어업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삼 어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 양국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동 관리를 재확인하며, 환경 모니터링, 블루카본 및 탄소크레딧 관련 이니셔티브도 논의함. 차기 회의는 연말 세이셸에서 열릴 예정임.

□ 모리셔스, 유엔 정상회의에서 로드리게스 주변 16만9천 km<sup>2</sup> 해양영역 확장 요청

- 모리셔스는 2024년 3월, 로드리게스 섬 인근 약 16만9천km의 대륙붕을 자국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공식 요청을 제출했으며, 2025년 7~8월 뉴욕에서 열린 CLCS 제64차 회의에서 이 요청이 검토 중임.
- 이번 요청은 로드리게스 해령 등 지질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학적 평가를 통해 권고안을 받게 됨. 모리셔스는 이를 통해 EEZ(약 230만km) 이외의 해양 자원 관리권과 블루이코노미 분야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노리고 있음.

□ 모리셔스, 해양 잠재력 실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전달 기구’ 설립 추진

- 모리셔스 정부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 전달 기구(Blue Economy Unit)’ 를 신설할 계획임. 아르빈 불렐 장관은 국가의 해양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해당 기구는 선디 라마 박사의 지휘 아래 EU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양 산업 개발을 추진하게 됨.
- 전략 계획 수립, 세이셸과의 교류, 관련 법률 제정(11월 예정)과 함께, 블루 채권과 생물다양성 채권을 통한 금융 조달, 항만 개발 등 해양 기반 산업 활성화가 병행될 예정임. 정부는 청년의 농·어업 참여도 장려하며 해양 농업 통합 전략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

## ◆ 9월 보고서

###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SHEN HONG (Taiwanese Flag)	2025-03-28/ 2025-05-22	수리	포트루이스 (CNOI)
COMPAGNIE FRANCAISE DU THON OCEANIQUE CONCARNEAU (France)	CAP ST MARIE (French Flag)	2025-04-12/ 2025-06-05	수리	포트루이스 (CNOI)
	SALGIR (Panama Flag)	2025-05-01/ 2025-06-16	하역	포트루이스 (CNOI)
	IZAR ARGIA (Spanish Flag)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9.09.	ENGEN	USD 800	MGO	

### 다. 해양·수산업 동향

세계 수로의 날: 해저 지형도 세미나 개최

- 2025년 8월 6일, 모리셔스 머 루즈(Trevessa House, Mer Rouge)에서 ‘해저 지형도: 해양 관리 이행을 가능하게 하다’ 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본 행사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해양 여성 네트워크 (WOMESA)가 주최하고, 모리셔스 대학교 · 수로국 · 주택토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음.

- 수로국의 Muthukumar 사령관은 해저 지형도가 안전한 항해, 환경 보호, 연안 회복력, 경제 개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또한 수로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임을 언급하며, 여성과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
-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과 Q&A,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학계 · 정부 · 해양 산업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류를 이어감.

## 라. 기타사항

- 모리셔스 자유무역지대: 글로벌 비즈니스 및 지역 성장의 관문
  - 모리셔스 정부와 경제개발위원회(EDB)는 2025년 8월 21일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활용 기회’ 워크숍을 열어 자유무역지대(Freeport)의 성장 전략을 논의함. 재무부 차관 Dhaneshwar Damry는 Freeport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인프라 · 항만 현대화와 금융 · 디지털 연결망 강화를 강조했고, 모리셔스를 인도-아프리카 간 전략적 교역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함.
  - EDB 산제이 분준 의장은 Freeport가 고용과 수출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New Africa Strategy와 연계해 시장을 확장하고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워크숍은 정부 · 기업 · 관리회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모리셔스 Freeport의 글로벌 · 지역 허브 도약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됨.

# 참고

##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주소
남태평양 도서국	 <b>오시영</b> (‘64년생)	Tel. +1684-699-8523	P.O.BOX 1583, Pagopago, American Samoa 96799
		Mobile +1684-258-9900	
		FAX +1684-699-8531	
피지 (+3시간)	 <b>김종태</b> (‘68년생)	e-mail <a href="mailto:shiyeongoh@hotmail.com">shiyeongoh@hotmail.com</a>	44 Pathik Namadi Heights, Suva, Fiji
		임기 '23.10.15. ~ '25.10.14.	
		Tel. +679-330-7188	
파푸아뉴기니 (+1시간)	 <b>정승화</b> (‘65년생)	Mobile +679-999-2523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FAX +679-331-1705	
		e-mail <a href="mailto:ckpfj@naver.com">ckpfj@naver.com</a>	
아르헨티나 (-12시간)	 <b>이상우</b> (‘75년생)	임기 '24.06.01. ~ '26.05.31.	Marcos Sastre 1660 Mar del plata Bs.As Argentina c.p 7600
		Tel. +675-321-8137	
		Mobile +675-7928-8888	
동남아시아	 <b>박상천</b> (‘65년생)	FAX +675-321-4224	Rukan Avenue Nomor 8-135 Perumahan Jakarta Garden City Cakung Timur Jakarta 13910 Indonesia
		e-mail <a href="mailto:jc651016@gmail.com">jc651016@gmail.com</a>	
		임기 '23.05.10. ~ '25.05.09.	
아프리카·대양주	 <b>이윤홍</b> (‘60년생)	Tel. +54-223-495-0712 /493-4934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Mobile +54-9-223-546-3919	
		e-mail <a href="mailto:kargeexport@gmail.com">kargeexport@gmail.com</a>	
세네갈 (-9시간)	 <b>김점봉</b> (‘67년생)	임기 '24.06.01. ~ '26.05.31.	km 9.5 Rte de Rufisque BP: 3479 Dakar, Senegal
		Tel. +233-303-200995	
		Mobile +233-24-2168654	
뉴질랜드 (+3시간)	 <b>윤정환</b> (‘52년생)	FAX +233-303-200933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e-mail <a href="mailto:skshipafrica@yahoo.com">skshipafrica@yahoo.com</a>	
		임기 '24.01.04. ~ '26.01.03.	
인도양	 <b>이동춘</b> (‘62년생)	Mobile +221-77-880-9080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FAX +221-33-853-0851	
		e-mail <a href="mailto:senegalkim@gmail.com">senegalkim@gmail.com</a>	
모리셔스 (-5시간)	 <b>윤정환</b> (‘52년생)	임기 '24.08.20. ~ '26.08.19.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Tel. +64-3-344-1617	
		Mobile +64-27-437-6210	
인도양	 <b>이동춘</b> (‘62년생)	FAX +64-3-3444-1617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e-mail <a href="mailto:seajho@xtra.co.nz">seajho@xtra.co.nz</a>	
		임기 '23.10.15. ~ '25.10.14.	
모리셔스 (-5시간)	<b>이동춘</b> (‘62년생)	Tel. +230-217-1700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Mobile +10-5796-5453	
		FAX	
모리셔스 (-5시간)	<b>이동춘</b> (‘62년생)	e-mail <a href="mailto:kmarinelee@gmail.com">kmarinelee@gmail.com</a>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임기 '23.10.15. ~ '25.10.14.	
		Tel. +230-217-1700	